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李, 의료개혁 공감·민생지원금 이견...

양측 단독 회담 시간 없이... 국무총리 인선도 논의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진행된 첫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등 일부 정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별도의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으며 다시 만나자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만에 처음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2시 4분부터 2시간 15분간 회담을 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져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논의 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국민,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재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제를 다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져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논의 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국민,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재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제를 다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져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논의 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국민,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재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제를 다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져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논의 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국민,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재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제를 다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져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논의 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다보니 국민,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재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제를 다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054-791-1717

! 단체인상 !



주낙영 경주시장은 30일 오후 천북면 물천리 944-7에서 열리는 '자전거공원(펌프트랙) 준공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30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자율형 공립고 2.0운영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다.

## “1순위 마감 청약 이어갈까” 대구 5월 1400여가구 분양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3404가구 지방에서 1만6189가구 분양 예정 수요자들 선별 청약 양상 이어질 듯

대구에서 5월 중 1400여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2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3404가구, 지방에서 1만6189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대구에서는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1차(181가구)와 2차(152가구) 333가구,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리시티 1098가구 등 1431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달 초 분양된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가늘은 경쟁률 속에 청약이 마감된 후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에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12일 1, 2순위 청약을 진행한 범어아이파크는 82가구 모집에 1370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6.7대 1을 기록

했다. 84㎡A·B·C 3개 타입을 분양했는데 이 중 84㎡A와 B 2개 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마감됐다.

직방 측은 "분양가 경쟁력,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했다. 84㎡A·B·C 3개 타입을 분양했는데 이 중 84㎡A와 B 2개 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마감됐다.

직방 측은 "분양가 경쟁력,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폐·전업 앞둔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상인들 “울상”

경북도, 라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교류 협력 모델 구축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입구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이행계획서 등 후속 조치에 나서자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보상 계획안도 없이 일터를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9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개고기'라는 단어를 감추려는 듯 스티커로 가린 모습의 보신탕 업소 상인들은 장사 준비로 분주했다. 상인 A 씨(60대·여)는 "10년 안에는 사라질 곳인데 굳이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시장에 와서 시위할 때도 곳곳에 버티었는데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지만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1년 안에 관련 업종이 사라질 텐데,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불경기에 생계를 쉽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식용개 판매 업소 업주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북구는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태전동, 구암동에 식용개 관련 식품점 11곳, 건강원 등 유통업체 8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식용금지법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3개월 새 319건 수배자 검거

눈에 띄는 성과 보여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창설 3개월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창설 이후 3개월 동안 총 319건의 수배자 검거와 386건의 통고처분, 29건의 안전·보호조치 등을 처리했다.

이달 대구지역 전체 112신고가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기동순찰대가 집중 배치된 장소에는 증가폭이 적거나(동대구역), 오히려 감소(달서·남부·북부)했다.



대구경찰청은 전체 기능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46명이 참석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이 전략회의는 지난 2월부터 매일 대구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이달 회의에서는 ▲경찰서별 범죄증감 및 112신고 분석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결과 ▲관내 주요 행사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5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

유재성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공항 들어설 군위군 집값 3.86% 경추...

대구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이 전년 대비 0.42% ↓ 군위군 3.86% 가장 많이 올라 수성구 0.21%, 중구 0.2% ↑

TK(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설 대구 군위군)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인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4만3000호의 가격이 전년 대비 0.42% 하락했다. 집값 하락은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 보면 TK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이 3.86%로 가장 많이 뛰었고 수성구 0.21%, 중구가 0.2% 각각 올랐다.

반면 남구 -1.32%, 서구 -0.64%, 동구와 달서구 -0.6%, 북구 -0.56%, 달성군은 -0.55%를 기록했다.



### 군위읍 공무원봉사단 'CUS', 도배봉사 실시

군위읍 공무원봉사단 'CUS' 14명은 지난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휴일 아침부터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펼쳤다. 군위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가족과 단절

되고 외롭게 길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 홀몸 어르신을 발굴하여 4월 중 불자봉사회에서 청소 봉사, 자원봉사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싱크대 설치) 지원 후 올해 결성된 군위읍 공무원 봉사

단인 도배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장판칠 군위읍장은 "공무원 봉사단이 결성되고 처음하는 봉사활동에 도배방법을 배워가며 서툰 솜씨를 발휘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군위읍 발전과 나눔 문화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대구시, 하노버에서 참여 데이터산업 글로벌 협력

## 독일 DLR·지역 데이터기업 5개사 공동 프로젝트·중장기 협력 합의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2024, 이하 하노버메세)에서 대구공공운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와 유럽 GAIA-X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인터엑스, ㈜이시스, ㈜에이비에이치 등 5개 지역 데이터기업과 함께 대구공공운을 조성해 하노버메세에 참가했으며, 제조 AI 및 전자 지도(Digital Earth) 분야의 혁신 기술 홍보를 통해 해외에 우리 기술을 선보이고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 일정 중 24일,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와 참여기업 간 '유럽 GAIA-X 생태계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검증'을 주제로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조 AI 분야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유럽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 교환/거래를 위한 프로토타입 구축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물류로봇 분야 참여기업인 이시스

는 독일 DLR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제품인 '디지털 어스' 기반하에서 물류로봇 이동 경로 및 위치제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관제 파일럿 서비스 제작'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처음 하노버메세에 참가한 대구시는 참여기업과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및 해외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쳤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기획 협의 등 중장기 협력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유럽과의 국제 데이터 협력 강화 및 데이터 기반의 각종 솔루션 상호 교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비에이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조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HDH(Honeycomb Data Hub)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환경 데이터(온도, 습도, 압력)를 수집하고 제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DLR과의 MOU를 통해 Gaia-X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 항공우주센터(DLR)는 10월 23일부터 대구시에서 개최 예정인 'FIX 2024(미래혁신 기술박람회)'에 참여할 의향도 내비치며, 지역 5개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할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성과 발표와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MOU 당일 Anke Kaysser-Pyzalla DLR 총괄이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대가 크며, 한국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Base-X)을 준수할 예정이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유즈케이스 발굴과 상호 호환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독

일과 한국 간의 협력체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아마존, 지멘스, LS ELECTRIC, SK C&C, 현대오트모터 등 미래 모빌리티, 로봇, ICT 분야의 기업들과 GAIA-X,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기관 부스를 방문해 '혁신 기술이 바꿀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하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홍보했으며, 많은 기관과 기업이 대구의 FIX 2024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최연배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올해 하노버메세 참가를 통해 지역기업의 유럽 GAIA-X 프로젝트와 연결 고리를 만들고 동시에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동구 불로화훼단지, '화훼테마단지'로 개발

### 대구시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동구 불로화훼단지가 대구시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동구청은 (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불로화훼단지는 △상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경관정비 △홍보전시관과 상징물 설치 △화훼축제 및 마케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50년 역사의 불로화훼단지 기반 사업을 통해 직접 생산과 종합 유통이

가능한 영남권 대표 화훼테마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로화훼단지는 대구공항, 팔공산IC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환경과 팔공산-금호강을 잇는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는 곳이다.

한편 골목상권 활력지원사업은 골목상권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12개 골목상권이 신청해 불로화훼단지와, 경대북문상권 등 총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조미경 기자



## 달성군,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추진

### IoT 디바이스 100가구 보급

달성군은 지난 26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달성군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독사 취약계층 약 100가구를 선정해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읍·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TV,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에 스마트 돌

봄 플러그를 연결하고, 전력량 및 조도량의 변화 추이를 인터넷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Web)으로 관찰하여 전력량 미변동 등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복지지원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IoT 기술을 활용한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들을 고독사 위험군 판단 기준에 따라 일반, 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인 가구 및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세심한 정책 수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뿐만 아니라 △달성안심서비스 앱(APP) △AI안부전화서비스 △간담응급료 배달 사업 △은기하키 반찬지원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구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 올해 안심식당 20곳 추가 지정

### 내달부터 선착순 모집 나서

수성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안심식당 20개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일방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카페, 디지털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전문점, 주류 위주 판매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식당 지정에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053-

666-2764)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2024년 안심식당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수성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527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업소에 지정 표지판, 수저 포장집, 집게 등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수성구청 홈페이지와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동구청, 찾아가는 사회보장급여 설명회 개최

###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동구는 지난 25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설명회는 통장 등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 주요 개정 사항, 급여별 복지혜택 등을 교육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복지조사 및 관리팀 담당자가 한다.

동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정보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방

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복지수요자 증가 추세에 맞춰 지역 내 사회 안전망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어려운 공공부조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인 주민의 복지서비스 전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동구 주민이 살기 좋은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망월지 두꺼비 생태체험 운영

수성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망월지 두꺼비를 주제로 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두꺼비 생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수성구가 자체 제작한 워크북을 활용, 망월지 두꺼비 산란 보호 중요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망월지 내에서 서식하는 두꺼비를 직접 관찰하는 기회를 가진다.

지역 초·중학교 학급이나 동아리 단위 학생들이 가운데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성구 옥수동에 위치한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조미경 기자

## 군위군, 조사료 옥수수 재배지 확대 논의

### 사료값 폭등 한우농가 지원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는 지난 25일 한우농가 경영력 확보 및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하계 조사료 옥수수 재배지 확대 대책 회의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엔 김진영 군위군수, 장원수 군위군 한우지부장, 정민재 군위군 낙우회장 및 읍·면 한우회장, 군위축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수수는 조사료의 왕으로 불릴 만큼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뛰어나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시도해왔으나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고가의 수확장비로 인해 옥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다.

올해 군위군은 사료값 폭등과 한우 경락가격의 하락으로 이종고에 시달리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여 축산경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옥수수 수확장비 등을 확보하여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원수 군위군 한우지부장은 "하계 조사료(옥수수) 재배지를 확대할 경우, 조사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축산 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소에게 급여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군위군수는 "하계 조사료(옥수수) 재배지 확대 시, 조사료 지급률을 높여 축산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부속된 축분(액비)을 조사료 재배에 살포하여 농가는 비료 사용을 줄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악취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경북 고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 1교 1명 양성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에서 고등학교 교사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취평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성취평가와 사·논술형 평가 현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 학교 성취평가 업무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단위 학교 성취평가 선도요원으로 성취평가 관련 교내 전달 연수와 업무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번 연수에 이어 2차로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북도, 다양한 지원책 준비로 영농철 일손부족 없다

## 올해 98만명 인력 지원 계획 농촌인력 공급센터 50곳 확대 도 농촌인력증개센터 첫 운영

경북도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공공영역에서 98만여 명의 인력 공급을 목표로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내실화, 내국인 근로자 지원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확대한다.

먼저, 도는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한다. 10월까지 농민기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농작업 진행 상황, 인력수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인력수급 지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주요품목 주산지에서 중심으로 중점 관리 시군 10곳을 선정해 농민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도농인력증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농가 및 구직자 구인·구직 신청, 실적 관리,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둘째, 농민기 인력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인 근로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46개소를 운영하던 농촌인력공급서비스센터를 올해는 전 시군 50개소로 확대 운영해 총 33만 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 증개센터와 지원센터에서 도시구직자 등 유망인력과 농가를 적기에 매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 농촌인력증개센터도 운영한다. 도 인력증개센터는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시구직자 모집 홍보 활동에 힘쓴다.

관내 또는 인근지역의 인력공급만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청송, 영양, 봉화, 울진 등 4개 시군은 농촌에 체류하며 농작업에 참여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도시에서 모집한 700여 명의 체류형 영농작업반 참여 인력들은 농번기(5~11월) 중 1개월 내외로 농촌에 체류하며 농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고용부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도농상생 일자리 채용사업'에 안동,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청도 등 7개 시군이 참가해, 5만여 명의 도시 유망인력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일손 돕기 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도시군 공무원, 농업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대학과 연계해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제 일손이 절실한 장애인, 고령 및 독거 농가 등에 부족한 일손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20개 시군에서 88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낸다. 이는 지난 한 해 배정받은 7432명보다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한, 시군이 선정한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 후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지난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경북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김천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돼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현장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만큼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농촌인력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안정적인 영농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청, 독립운동길 탐방 교사 연수 실시

### 고귀한 선열들 독립정신 계승

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 구미 왕산허위선생기념관과 독립운동유적지에서 독립운동길 자율탐방 교사동아리, 사제동행 나라사랑 학습동아리 지도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독립운동길 탐방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북인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독립운동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의 특강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사 활성화 관련 현장 교

사들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연수 참가자들은 왕산허위선생기념관을 답사한 후, 허위 선생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허위 선생은 구미 출신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13도 창의군'을 조직해, 선발대 30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향해 진군했으나 결국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54세의 나이로 순국한 경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선열들께서 남겨주신 고귀한 독립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북 독립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올바른 나라사랑교육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독립운동길 탐방 30교, 사제동행 나라사랑 학습동아리 30교, 독립운동길 자율탐방 교사동아리 42팀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던 고등학생 국외 독립운동길 탐방도 재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독립운동길 교사 연수를 통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애국선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경북교육청은 독립운동가들이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사랑교육 활동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2개사 협약

### 경북도, 전주기 생태계 구축 노력

경북도는 29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본부 등 다목적 강당에서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선정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12개 사업 직원과 주관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석했다.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원전기술 확보 및 지원 기반 조성·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 판로개척 분야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사업지원을 신청받아 4월 16일, 17일 이틀간 선정

평가를 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원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원자력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에 있어 경상북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원자력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들어선다

### 비수도권 유일 2곳 운영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에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시행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센터에서는 난임부부, 임신부, 양육모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울, 경기와 함께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를 확보했다.

도는 2021년 10월부터 운영하는 '경북 권역 난

임·우울증 상담센터(안동의료원 수탁)'에 이어 2024년 하반기에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김천의료원에서 수탁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센터장)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부센터장)를 중심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난임부부, 임신부, 양육모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 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상담센터 추가 확보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상담 대기 시간 단축,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고위

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상담센터 추가 확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지지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출산율 2.1명 달성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난임진단자는 24만여 명에 이르며, 산후조리 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7년 50.3%에서 2020년 52.6%로, 우울 위험군 비율도 2017년 33.9%에서 2020년 4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청,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가져

### 도내 5개교 11개 학급 운영

경북교육청은 29일 경주시에 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군(軍) 특성화고등학교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정우수 육군 50사단장(소장), 김현 해병대사령부 교육훈련단장(준장), 송민선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8급), 신형진 공군 인재개발교육과장(대령) 등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경북교육청은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 산라공고등학교(경주), 경북하이테크

등학교(안동), 영천전자고등학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영주) 등 5교에서 8개 분야, 11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헬리콥터 정비, 차량 정비, 자주포 운용, 정보통신, 공병 운용, 조리 분야에 7학급, 공군은 전투기 정비 분야에 2학급, 해병은 정보통신 운용 분야에 2학급으로 현재 11개 학급 총 209명의 학생이 편성되어 기초 군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 운영 5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특성과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에 맞춰 최종 선발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협력 교육기관 인소 교육, 자매결연부대 방문 체험 교육, 주특기 분야 전문교과(전체 교과 40% 이상)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 교육을 하게 된다.

## 경북도 새마을의 날 기념식...유공자 38명 시상

### 서중호 경북새마을회장 취임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맞아 경북새마을회(회장 서중호) 주관으로 29일 경북도청 동관관에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8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제18대 경북새마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경북새마을회는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김상훈 국회의원, 권영진 국회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저출생 관련 특별공영 △시군 직전회장 재직기

념제 전달 △유공자 표창 △저출생과 전쟁 극복 성금 전달 △저출생과 전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지역 내 활발한 새마을운동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새마을지도자 38명이 각각 경북도지사 표창(19), 새마을운동중앙회 표창(7), 경북새마을회장 표창(12)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18대 경북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한 서중호 회장은 "새마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중추도 새마을회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변화·혁신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하는데 대해 “여당에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장에 당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부총리를 지명했다”며 “국민께서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며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 전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국힘 황우여 비대위 체제 ‘전대 룰’ 개정 최대 과제

국힘, 전당대회 관리역에 현역 중진 아닌 상임고문 황우여 추대 ‘전대를 개정·비대위 인선’ 정치력 필요하지만 ‘관리역’ 권한 한정 국힘 당권 주자들, 황우여 카드에 공개 반발 자제...이견은 여전

국민의힘이 29일 4·10 총선 참패 보름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며 당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비대위원장은 두 달여 임기 동안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외에도 친윤계와 비윤계간 입장이 다른 현안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이란 난제도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은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선임하는 동안 연료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여준 황상임고문 카드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전당대회가 치러질 7월초까지 두달 정도에 불과한데다 권한과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에 국한돼 있어 황상임고문이 민감한 쟁점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기 전당대회를 위해 4·5선 현역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 때문에 후보군들이 고사하면서 불발됐다. 당을 떠났던 황상임고문이 지명된 것은 일종의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황상임고문을 비대위원에 지명했다. 그는 황상임고문을 지명한 이유로 공정성과 중재력 등을 꼽았다. 황상임고문은 지난 26일 윤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수락했다.

그는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상임고문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모셨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도 잘 했다. 역할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에서 별도 반대 토론과 투표 등 절차 없이 박수로 황상임고문을 추대했다. 상임전국위, 전국위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상임고문은 취임하면 전당대회 관리라는 국민의힘이 부여한 역할 외에도 당대표·최고위

원 선출 규정 이견 조율이라는 숙제를 부여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 룰을 유지했으나, 정철석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친윤계 주도로 당원투표 100% 룰을 변경했다.

비윤계와 수도권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국민 50%·당원 50% 반영 등 선출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후보들도 규정 변경 등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는 선출규정 변경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비대위원 구성도 황상임고문의 또다른 과제로 꼽힌다. 친윤계로 비대위원을 꾸릴 경우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정권심판론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비대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비대위 구성이다. 가능한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나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

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전당대회 룰 개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심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정치경험이 많으시니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씀한 중립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황상임고문은 합리적인 분”이라며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잘 모르겠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자체가 결국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지 않는다는 의구심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 쇄신할 때”라고 했다.

## 국힘 원내대표 출마 눈치싸움... 친윤-친명 강대강 구도 되나

‘비윤’ 김도읍 원내 불출마 선언 ‘친윤’ 이철규 부상에...출마자 안 나와 추경호, 내일 TK 재선들과 오찬 예정 ‘친명’ 박찬대 ‘친윤’ 이철규 구도 예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공식출마 희망자가 없는데다 ‘친윤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꼽히던 ‘비윤’ 김도읍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 사실상 이철규 단독 출마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대 국회 여야 협상이 ‘친윤’과 ‘친명’ 원내대표(박찬대)간 ‘강대강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원내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참패한 이후 당 재건을 맡을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지명과 원내대표 선출 작업에 들어갔다. 내달 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3일 오후 2시 총선 당선자들 사이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도읍 의원은 친윤 색채가 엷은 ‘비윤계’로, 법사위원장 경험 등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추진에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은 더 좁혀졌다. 이에 더해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후보군에 올랐던 김상훈·김성원·박대출·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 등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력 후보였던 김 의원의 불출마를 놓고 “어려울 때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취해줘야 하는데 실망스럽다”며 “서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당 전체 분위기가 살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당정 관계 쇄신’을 요구하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반

발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전날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서는 이 의원의 대항마로 김도읍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규 의원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부정적”이라며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현진 의원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당에 좋은 분들이 많다”면서도 “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를 시사했다.

당 사무총장·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총선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영입 인재들과 연이어 만난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기 당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비윤계’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羅李)연대설’도 제기됐다.

선거를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이날 오후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은 오는 29일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 지역 재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추 의원은 그간 22대 당선인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초대된 한 의원은 “평소에 (대구·경북 의원들끼리) 늘 해왔던 자리”라며 “시기가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주변 의견을 듣고 상의하고 있다. 의견을 좀 더 모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3선 당선인 중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성일중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성원 의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국민 뜻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 민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정치적 퇴행” “시대착오적 발생”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 학생 인권과 관계없어” “학생·교사 인권 보장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반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평가하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물상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 보완을 약속하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싸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학생과 인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을 보호한다고 교권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보편적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란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2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현장에서 인권문화를 싹틔우는데 기여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육원 인권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힘 34.1% 민주 35.1% 3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4·10 총선 2주가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등하지 못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3주째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34.1%, 민주당은 0.1%p 오른 35.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13.5%(전주 대비 0.9%p ↓), 개혁

신당 6.2%(0.4%p ↑), 새로운미래 1.8%(0.4%p ↓), 진보당 1.6%(0.5%p ↓), 기타 정당 2.7%(1.2%p ↓), 지지하는당이 없는 무당층은 5.0%(0.2%p ↓)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19.5%p ↓), 부산·울산·경남(6.5%p ↓), 대구·경북(4.8%p ↓)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32.1%p ↑), 광주·전라(6.1%p ↑)에서 상승했다.



경주 화랑마을, 어린이날 맞아 소확행 이벤트 선보인다

경주 화랑마을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11시부터 15시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소확행 이벤트를 선보인다. 매년 개최되는 게릴라성 소확행 이벤트는 지

난 2018년 개원 이후 시민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시행된 화랑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성 이벤트다. 참가하는 체험용 활을 들 수만 있으면 누구나가

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방문객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화랑마을 백배 즐기기 이벤트에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랑마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저출생 해법 찾는다... 경주시, 63개 사업 791억 투자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저출산 극복 사업 공개 주낙영 시장 “모든 정책 방향성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경주시가 29일 청사내 앞뜰에서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에 791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부시장, 국·소·실·본부장과 저출생과 전쟁 실무추진단 및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전략과제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저출생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 지원 △안심주거지원 △임신·출산·육아까지 완전돌봄 △일가정양립 등 5대 세부전략을 공개했다.

전략별 시책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워드키즈존 ‘온세상 어린이 환영’ 지정사업, 민원인 전용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구역 운영’,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등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결혼지원 프로젝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과 안심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청년 임대주택 운영 등도 눈에 띄는 해법으로 손꼽는다.

또 △청년 5만원 주택 운영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완전돌봄을 목표로 24시간 분산산후인과 운영지원 △임신부 배양해 예방접

종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 △경주형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지정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新실크로드520센터조성) 등도 종합대책에 담겨있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장려 인센티브 지원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육아휴직 업무 대지사 수당 지급 등도 인구를 늘릴 해법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5만 22개팀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도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미래를 향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저출산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경주시의 모든 정책이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에 탄소소재 재활용·제품화 연구센터 문 열어

29일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식 시험평가에서 인증까지 전방위 연구개발 지원

경주에 국내 최초로 탄소소재의 재활용·상용화 연구센터가 들어섰다.

시는 29일 의동에 소재한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서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이하 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비롯한 이철우 시의회의장 및 자동차 부품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분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93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면적 4305㎡, 연면적 2226㎡, 지상 2층 연구동과 지상 1층 시험동 등

모로 건립됐다.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 복합재는 철과 비교해 무게는 4분의 1에 달하고 강도는 10배 이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님스다. 부터 우주선까지 산업전 분야에 활용된다.

반면 자연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소재이며, 현재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재활용 플라스틱의 의무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센터 건립으로 탄소 복합재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제품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주력한다.

특히 친환경 미래자동차 소재인 탄소 복합재의 선별에서 분쇄, 열분해, 성형 등 시생산 장비 6종을 구축해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전기 펄스 시험기, 충전전단강도 시험기 등 8종의 분석 장비를 도입해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또 탄소 복합재 리사이클링 전문 인력양성을 비롯해 품질 고도화 기술 세미나 개최 등 기술·사업화 지원에도 앞장선다.

향후 센터는 부품소재산업 특화 전문 연구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정부가 탄소 복합재를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경주시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시장에서 친환경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탄소소재 부품의 재활용, 재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센터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12월 배터리 공용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가 준공되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는 미래 성장형 연구환경은 물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 산업기술 집적 R&D 단지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경주시 시가지 아름다운 봄꽃 물결로 넘쳐...

APEC 정상회의 유치 기원 꽃탑 등 도심 계절꽃 가득 지역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도심 환경개선 일석이조

경주시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에 화단, 화분대 등에 대대적인 봄꽃 식재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시가지는 물론 대릉원, 경감로, 황성공원, 황금정원 이음길 등에 가로화단 및 화분대에 4월까지 팬지, 비올라 등 봄꽃 9만5천여본을 식재하고 특히 경주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입구 보문교삼거리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염원을 담은 꽃탑을 세워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조성을 위해 10억 예산으로 상·하반기 읍면동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유희공간이나 시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특히 시는 지역 화훼농가 육성과 소득증대 및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꽃생산 확대 등을 위해 식재에 필요한 재료는 가능한 지역 생산 화훼업체에서 구매 하는 등 농가소득과 도심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춘시즌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 연인, 친구 등 많은 방문객들이 마음껏 힐링 하고 경주에서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 가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성료

모범근로자 35명 표창 수여 등 근로자 사기 진작·노고에 감사



경주시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지난 26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념행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에 감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가 주관한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의원, 권오탁 한국노총조합 총연맹 경북지역본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단결과 연대의 상징인 노동절의 의미를 나눴다.

먼저 표창 수여식에서는 노사화합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근로자 35명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흥을 한층 돋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산업 현장에서 흘린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됐다”면서 “경주시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은 물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올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제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1㎡당 788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1㎡당 275원이다.

제48회 열린시장실 개최... APEC 정상회의 유치 토론

시장실 견학, 시정 모의회의 등으로 시정 체험기회 가져

경주시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제48회 열린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시장실 견학, 시정 홍보 영상 시청, 시정 모의회의 등을 체험하면

서 지역 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시장 모의회의의 주제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각 부서별 역할’로 정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퍼포먼스로 더 쉽고 재미있게 APEC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시장 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경주와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시장에도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 시장실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행사 신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대외소통팀(054-760-2603)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주시,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일제정리 나서

특별징수반 편성해 급수 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추진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는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는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별징수반은 일제정리 가구에 대해 급수 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능한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결손처분 또는 직권 폐전을 진행해 수도요금 징수 현실화도 추진한다.

장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로 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율의 고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영양공설운동장 및 축구경기장에서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축구대회로서 50대부 12개 팀이 참가했던 전년 대비 참가규모를 늘려 50대부 14개 팀, 60대부 8개 팀으로 총 22개 팀 480명이 참가하였고, 경기 결과 50대부 우승은 경남 김해 FC, 60대부 우승은 경기 수원 FC 팀이 차지했다.

영양군에서는 축구경기장을 확충하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더욱 발전된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회 참가선수 및 가족 등의 영양군 방문으로 관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영양을 찾아주시는 동호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가 모두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 청도공영사업공사, 전국민속소협 겨루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 활동

청도군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에서 실시한 '제22회 달성전국민속소협겨루기대회'에서 불법도박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와 달성군, (사)대한민속소협겨루기협회 달성군지회, 지역 경찰과 함께 행사장을 돌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중독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불법도박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성인 도박중독과 청소년층의 도박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도박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장년민속대회(2024.3.30.)와 의령민속대회(2024.4.20.)에 이어 세 번째로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을 달성민속대회에서 진행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작년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는 민속소협겨루기 대회에서 각 지자체와 (사)대한민속소협겨루기협회,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불법도박 예방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합법 사행산업 기관으로서 건전 레저 문화 정착과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제2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열정의 도가니 총 104팀 참가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1시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영양산나물전국가요제'의 2차 예심에서 본선 진출자 15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언론협회가 주관

하는 제2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2차 예심에 총 104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2차 예심은 1차 예심(200여팀)에서 서류심사와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104팀이 5월 9일 오후 7시에 치러지는 본선행 티켓 15장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경쟁한 실력자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이번 2차 예심은 △한양대학교 △약단장 △작사·작곡가 3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개별제점 방

총15팀 본선진출 확정  
5월9일 본선에서 맞붙다

식으로 경연의 공정성을 더했다.

최종 선발된 15팀은 오는 5월 9일 19시 영양산나물축제 특설무대에서 '제2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본선을 치른다. MC이수환(남),김선영(여)의 진행으로 양희은, 민혜경, 주미 등 인기가수가 등장해 가요제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가창상 30만 원, 인기상 2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또한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가수협회에서 가수인정서가 주어진다.

영양군언론협회 남승모 회장은 경연에 앞서인 사람을 통해 "오늘 제2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2차 예심을 참가하기 위해 반딧불이의 고장 별빛 쏟아지는 청정 영양군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모든 참가자 분들이 평소 갖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해 본선 무대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영양군 언론협회에 감사드리며, 멀리서 찾아주시는 가수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가수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15명의 본선 진출자들께서는 5월 9일, 산나물축제 첫날, 좋은 컨디션으로 영양군민들께 깊은 울림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 울릉군, 국고보조사업(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실시

사업담당 대상 이론·실습교육,  
투명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노력

울릉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고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전 처리과정을 전자화하여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과 정산, 부정수급 방지 및 국민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7년도에 도입돼



는 국고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공모교부정산 등 사업 절차의 전반적 진행과정과 정보공시관

리, 부정수급관리 등 시스템 기초교육 위주로 실시됐다.

특히 이론교육은 물론, 사업별 전과정을 전산상에서 직접 시행해 볼 수 있는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사업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률 제고와 업무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교육 참석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방안 맞춤형 교육이 시행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울진군, 금강송에코리움 우수 웰니스관광지 4년 연속 선정

울진군은 금강송에코리움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4-25년'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9일 밝혔다. 울진 금강송에코리움은 2021년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선정된 이후 2년마다 진행되는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또 한번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선정됐다.

세계 최대 금강송 군락지에 자리한 금강송에코리움은 숲을 통한 쉼과 여유, 치유를 테마로 하는 울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힐링·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웰니스관광지로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경수 기자

## 울진 왕피천공원 가정의 달 이벤트 진행

어린이날 공원 내 모든 시설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

울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왕피천공원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어린이들은 공원 내 모든시설(안전체험관, 곤충여행관,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등)이 무료이며, 왕피천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물 및 색다른 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어린이날 당일 10시부터 16



시까지 안전체험관 및 광장에서 물레 떡볶이 이벤트를 실시하여 우산, 비눗방울, 음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아쿠아리움은 5월 5일 오후 3시 30분 아쿠

아리스트와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수중퀴즈쇼, 5월 4일~5월 6일 오후 3시 물범생태설명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5월 1일부터 가정의 달 특별할인으로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을 각각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 5인까지 20% 할인,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결합상품을 온라인으로 사전구매 시 최대 30% 할인 이벤트를 한달 간 진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왕피천공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이벤트가 어린이와 모든 가정에 소중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울진 왕피천공원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제도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 청도군, 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청도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관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여은 기자

## 영양군 보건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 운영

영양군 보건소에서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장려 및 금연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관내사업체와 함께하는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연 서비스 제공 및 지지적 코칭을 통해 금연실현을 유도하고, 직장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는 2개 사업장(영양군고추유통공사, 멸종위기종복원센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동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12주

간 8회의 개인별 1:1클리닉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구강상당 스트레스관리법 △영양운동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100% 출석을 완료한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또한 12주 집중관리 후, 6개월간 지속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많은 직장인들이 금연에 도전해 개인의 건강향상은 물론 사업체 내에 금연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장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금연 홍보로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영덕로하스·대구한의대학교, 산·학 공동교육 협약 체결

수산물 가공업주인 역량 강화

수산물 산업 지역 활성화 기대

영덕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와 대구한의대학교 글로벌푸드비즈니스전공이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과 교육 분야의 협력을 위해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덕군 수산물 가공업과 지역주민 지원 및 교육 △현장 실습 교육, 캡스톤디자인 및 교육과정 개발 협력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 공동교육 협력 사업 추진 △일자리 홍보 및 산학 협력교육 개

선 협의회 추진 등이다.

박진석 센터장은 "대구한의대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 수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백영복 과장은 "이번 협약은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지역의 수산물업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함으로써 교부가가치의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조여은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조교 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영천시장 기파크골프대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 착한푸드, 성주군 선남면 별고을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지난 29일 주식회사 착한푸드에서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1백만 원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기탁했다.

착한푸드는 선남면에 소재한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체로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경무 대표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부를 별고을 장학금으로 실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미래 지역 인재들을 위해 조금이나 힘이 되어 기쁘다"며 지역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이병환 성주군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 적십자봉사회·영천시협의회, 국토청결 정화운동 전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는 지난 27일 소속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천강변공원 일대에서 국토청결 정화운동과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병행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 그리고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인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강변공원 일대를 구석구석 다니며 길바닥과 수풀에 버려진 캔, 음료수 페트병, 폐기물 등을 수거해 영천강변공원 일대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경원성 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며 걸어가다가 어느덧 뒤통아 뻐할 때 깨끗해진 강변공원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하고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활동도 적십자봉사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불 세탁 봉사, 땀나눔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랑나눔 밑반찬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재훈 기자

# '치유여행지' 영주시, K-웰니스관광 중심되다

## 국립산림치유원 '5회 연속' 소백산생태탐방원 '신규' 선정

영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국립산림치유원(5회 연속)과 소백산생태탐방원(신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자연치유 △뷰티·스파 △힐링·명상 △한방 △스테이 △푸드 6가지 주제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우수웰니스관광지 및 시설을 추천받아 서면, 현장평가를 거쳐 신규로 13개소를 선정하고, 기존 선정된 64개소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최종 77개소를 선정했다.

영주시는 자연치유 부문에서 2개소가 선정(재지정 1개소, 신규 1개소)되며 K-웰니스관광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했다.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은 2017년에 웰니스관광지로 최초 선정된 이후 5회 연속 재지정을 받아 치유관광 분야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자연 속 치유활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백산생태탐방원은 올해 처음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됐다.

소백산생태탐방원이 진행한 외국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신규 유치 활성화를 평가한 'K-컬처 특화상품

## 영천시, 보현산땀출렁다리 27일부터 직거래장터 운영

영천시는 지난 27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현산땀출렁다리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렁다리 직거래장터는 보현산땀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영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선보이며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개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보현산땀출렁다리는 총길이 530m로 전국에서 2번째로 긴 다리이며 영천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떠오르는 인기 관광지이다. 이 인기에 힘입어 출렁다리 직거래장터도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품목으로는 과일, 채소, 버섯 등 신선 농산물과 와인, 호두기름 등 농식품 가공제품이 있으며, 8개 부스에 별빛촌 목요장터 참여농가, 화북면 새마을부녀회 생산농가, 화북면 생산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기로 영천 농특산물의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우성공원묘원, 저출생 극복 성금 기부

(재)우성공원묘원 에서 성금 100만원, 선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노경미, 민간위원장 이호석) 30만원을 각각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선남면에 소재한 (재)우성공원묘원은 1983년 설립되어 우성공원, 우성봉안당, 우성추모공원 등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나눔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재실 이사장은 "저출생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성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호석 민간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회원들의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살기 좋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성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공모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가장 매력있는 대한민국 10대 프로그램(프로그램명 : Soabaeksan Global Friends Program)에 선정된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소수서원, 부석사 등 전통과 문화에 강점이 있는 영주관광에 자연과 치유를 더해 영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 제33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성황리 종료

## 가야금 전통 잇도록 최선 대통령상에 김해람씨...



제33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령은 가야금의 발상지이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은 악성 우륵의 고향이다. 고령군과 고령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

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221팀 229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 대회의 총상금은 5450만원이며 최고상인 우륵대상의 상금은 국내 최고 수준인 2000만원으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통령상인 우륵대상은 김해람(병창, 여, 31세, 서울시 서초구)씨가 차지했다.

김해람 우륵대상 수상자는 "가야금의 고장인 고령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회에 위해 애쓴 관계자와 심사위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부분별 대상에는 대학부 신동현(기악,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고등부 박은율(병창,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 중학부 안하현(기악, 화성능동중학교 3학년), 초등부 임여빈(병창, 산현초등학교

5학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현숙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들이 국내 최고의 가야금 대회는 명성에 걸맞게 골고루 수준 높은 기량을 보여 만족스럽다"라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앞으로도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가 가야금인들의 꿈과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금처럼 권위 있는 대회로 가야금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3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는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야금 대회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배영백 기자

## 의성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



의성군 치매안심센터는 25일 관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한 고령(75세이상)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금성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검진·교육) 서비스를 운영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는 일반 운전자들과 달리 75

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교육장이나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복잡한 3단계의 갱신 절차를 거쳐야 면허갱신을 완료할 수 있다.

이에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과 협하여 치매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및 면허갱신서류 접수를 당일 현장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갱신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운전자들이 관외에 위치한 교육장까지 찾아가기

나 집에서 혼자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만큼은 1:1로 온라인 교육을 도와드려 기계조작의 어려움이 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었다.

원스톱(검진·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 A씨는 "시골 노인들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아니면 외출도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멀리 구미, 안동, 문경, 포항까지 가야 하는데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 "노인 운전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면허갱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불편함을 덜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 나아가 안전운전의 의식 함양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올바른 분리배출 '지구를 사랑하는 첫 걸음'

영천시는 지난 25일 기후 위기 극복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린환경센터 내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시민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기적으로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새마을회, 자연보호협회, 주민지원협의체, 이·통장연합회, 푸른환경운동본부, 지구시민연합 등 80여 명의 회

원들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재활용품을 직접 선별해 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참여자들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재활용용품 쓰레기 처리 과정을 견학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2년 9월 구축됐다.

이 시설은 건축면적 3076㎡로서 1일 처리 용량 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광학 자동 선별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취지이며,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정에서의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2024 대구광역시일보

#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